

## 직업과 생활기회에 관한 연구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김영기\*\* · 박재규\*\*

본 연구는 한국사회의 산업화과정에서 배제되어 왔던 전북지역에서 직업집단들간에 생활 기회가 얼마나 차등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좀더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6개 직업범주에 속하는 사람들간에 생활기회의 하위영역인 건강상태와 여가생활 각각이 얼마나 차등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직업별로 생활기회가 차등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직업적 위세가 높은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좀더 좋은 생활기회를 가지고 있으며, 역으로 직업적 위세가 낮은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열악한 생활기회를 가지고 있다. 먼저 전문·관리직 종사자들은 모든 영역에서 가장 우수한 생활기회를 누리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 전문·기술직, 사무직, 그리고 판매·서비스직 종사자들이 높은 생활기회를 누리고 있다. 그러나 이들 3개 직업집단들 모두가 모든 영역에서 일차된 생활기회를 가진 것은 아니다. 특히 전문 기술직 종사들은 일의 자율성과 안정성에도 불구하고 작업환경의 열악성과 그것이 건강에 미친 영향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반면에 판매·서비스직 종사자들은 낮은 사회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일의 자율성과 높은 수입 등으로 비교적 높은 생활기회를 누리고 있다. 그러나 농업과 생산직 종사자들은 비교적 열악한 생활기회를 가지고 있다. 특히 농업 종사자들은 여가생활부문을 제외한 다른 부문에서 생산직 종사자들보다 상대적으로 좋은 기회를 가지고 있었다.

\* 이 논문은 1996년도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지원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다. 본 논문의 초고를 읽고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남준호 교수님, 정철희 교수님, 그리고 익명의 한국인구학회 논평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 1. 서론

### 1) 문제 제기

1950년대 이후 시작된 국제적 산업구조의 재배치과정은 중심부 국가가 주변부 국가의 풍부한 저임금 노동력을 착취하려는 전략의 일환에서 비롯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구조의 재편과정에서 기회를 포착한 한국사회는 저임금 노동력의 착취전략에 기초한 '수출 지향적 산업화'(export-oriented industrialization) 정책을 통하여 급격한 경제발전을 이룩하였다(Frobel et al., 1980). 이러한 급격한 경제발전은 한국사회의 모든 부문에 걸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예를 들면, 한국은 1963년에 1인당 국민소득 100달러 수준에서 1996년 1만달러 국가로 부상하였고, 오늘날 국민들은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는 소비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한국사회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걸쳐 이룩한 경제성장의 결과 기본적인 의·식·주생활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였고 또한 선진국형 소비생활문화에 근접하고 있다. 이러한 양적 성장과 함께 오늘날 한국사회는 산업구조의 고도화, 고등교육의 확산, 그리고 경제적·정치적 민주화의 신장 등 이른바 '사회적 상황'(social contexts)에서 커다란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Park, 1996).

그러나 이러한 총체적인 모습의 변화와 발전에도 불구하고, 1960대 이후 한국의 산업화과정은 산업·지역·계층간의 균형적 발전 및 분배보다는 성장 제일주의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추진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인간생활의 본질적인 문제인 삶의 질(quality of life)을 개선하는 데 등한시하였다. 그 결과 한국사회는 산업간·지역간·계층간 심각한 갈등을 경험하였고, 특히 지역간 갈등현상은 한국의 사회·정치적 혹은 사회·경제적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역간 불균형발전에 따른 지역간 갈등의 심각성 때문에 그동안 지역간 불균형발전에 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지만(김영정, 1991; 초의수, 1993; 한국공간환경연구회, 1994), 직업을 중심으로 한 불평등현상과 그것에 따른 사회·문화적 생활에 관한 연구는 부재한 실정이다.

오늘날 한국경제의 발전이 가져온 풍요로움과 그 속에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영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삶의 양'보다는 '삶의 질'의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

으며, 학문적 관심도 또한 점차 고조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관심의 고양은 가까운 미래에 좀더 많은 연구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이 사회-경제적 발전의 궁극적 목표가 경제의 양적 성장을 넘어 국민생활의 질을 높이는 것임을 고려할 때, 한국사회의 정책방향은 이런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할 시점에 도달하였다. 이러한 상황인식 및 태도변화 그리고 실천적이고 정책적인 중요성을 고려할 때, 본 연구는 사회발전 및 산업화 정도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며, 또한 현대 산업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거론되고 있는 생활기회가 여러 직업집단들 사이에 어떻게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산업사회에서 직업은 개인의 사회적 위세나 경제적 계층의 위계서열구조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Weber, 1946; Blau and Duncan, 1967; Featherman, Jones, and Hauser, 1975), 직업군들 사이에 생활기회가 어떻게, 얼마나 차등적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분석하는 작업은 상당히 유의미한 일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직업집단들 사이에 생활기회, 특히 직업세계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노동과 건강’ 그리고 ‘여가생활’ 등이 상대적으로 저발전상태에 있는 전북지역에서 얼마나 차등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검토하였다.

## 2) 연구내용과 방법

본 연구는 전북지역, 특히 전주시와 익산시, 그리고 그 주변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동시에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기회가 직업에 따라 얼마나 차등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검토하였다.

베버(Weber, 1946)는 생활기회(life chance)를 재화의 공급과 외적 생활조건 및 개인적인 생활경험을 위한 대표적인 기회로 정의하였다. 다시 말하면, 생활기회란 개인의 삶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교육, 의료혜택, 주거환경, 여가생활 등을 포함한다. 베버의 개념에 기초하여, 거스와 밀스(Gerth and Mills, 1946)는 생활기회를 다음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을 포함하여 재정의하고 있다. 즉 생활기회란 ‘출생 후 처음 1년간 생존할 수 있는 기회, 좋은 예술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기회,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좋은 주거환경을 가질 수 있는 기회’ 등을 포함하였다. 물론 어느 하나의 생활기회는 다른 생활기회를 결정하며, 다시 이것은 그 역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한 개인의 생활기회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막스 베버는 시장적 자원(market resources)을 지적하고 있다. 시장적 자원들 가운데, 자본주의 산업사회에서 직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직업집단에 따라 생활기회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지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직업에 따라 생활기회의 영역인 '건강상태'와 '여가생활'이 얼마나 차등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생활기회의 영역인 건강상태와 여가생활을 좀더 구체적으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 1) 건강상태: 건강상태란 일정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노동여건과 그 직업이 종사자에게 직접·간접으로 미치고 있는 영향 또는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능성 등을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 검토한 변수들은 응답자의 1주일 동안 평균 근로시간, 현 직업의 작업환경 및 근로여건에 대한 만족도, 작업장내에서 산업재해 및 직업병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주관적 인식,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업에서 실제 경험한 부상횟수, 직업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주관적 평가, 현재의 건강상태 인식, 그리고 자발적 혹은 강제적으로 예상되는 퇴직연령 등이 포함되었다.
- 2) 여가생활: 일과 상호보완관계에 있는 여가시간은 일과 수면시간을 제외한 자유시간으로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 시간에 하는 활동을 망라한 것이다. 본 연구는 응답자의 주 평균 여가시간, 응답자 자신의 여가활동에 사용하는 월평균 여가비용, 월평균 가족 외식횟수 및 외식비용, 연간 얻게 되는 유급휴가일, 연간 응답자들이 여행을 위해 사용하는 비용과 시간, 그리고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 등을 포함하였다.

이상의 두 '생활기회' 영역에서 전북지역내 서로 다른 직업 성원들이 경험하고 있는 차이를 기술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전주시와 익산시, 그리고 그 주변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일정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모든 직업에 걸쳐 표집하여 조사하였다. 직업의 유형을 구분하는 데 본 연구는 한국사회의 직업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분석틀을 도입하였다. 직업의 유형은 크게 농업, 판매직, 서비스직, 생산직, 사무직, 전문·기술직, 관리직, 전문직 등 8개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다. 이러한 직업범주 모두를 사용한 분석은 자료해석차원에서 여러 가지 난해함을 수반하

고 또한 몇 개의 직업범주들간에 유사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는 판매직과 서비스직을 합하여 판매-서비스직으로, 그리고 관리직과 전문직을 합하여 전문-관리직으로 재구성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전문-기술직(엔지니어, 간호사, 건축사, 교사 등)과 전문-관리직(고급공무원, 기업체 간부, 의사, 교수, 연구원 등) 간의 생활기회가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분리시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1) 농업 종사자, 2) 판매-서비스직, 3) 생산직, 4) 사무직, 5) 전문-기술직, 6) 전문-관리직 등 6개 직업범주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sup>1)</sup>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생활기회의 영역인 노동과 건강상태, 그리고 여가생활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는 등간척도와 서열척도를 함께 사용하였다. 먼저 응답자의 월평균 수입과 저축, 재산상태(동산과 부동산), 교육년수, 근로시간, 현 직업에서 경험한 부상횟수, 예상되는 퇴직연령, 여가시간, 여가에 사용하는 비용과 여가시간(특히 외식횟수와 비용 및 여행일수와 비용) 등은 등간척도로 측정하였다. 반면에 응답자의 주택 및 거주환경 만족도, 작업환경 만족도, 산재 및 직업병 발생가능성, 직업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여가활동 만족도, 현재의 건강상태 인식도 등은 각각 5점 서열척도로 측정하였다. 이렇게 측정된 생활기회 변수들 각각에서 직업유형별로 어떤 차이가 존재하는지 기술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평균의 차의 검증(test of means)을 시도하였다.<sup>2)</sup>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1997년 1월 20일부터 1월 26일까지 1주일에 걸쳐 수집하였으며, 조사지역과 대상은 전북지역내 행정 및 산업도시인 전주시와 익산시, 그리고 그 주변의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일정 직업에 종사하

1) 이러한 6개의 직업범주 구분 및 사용은 다음 경험연구에서 검토한 기존 이론적·경험적 연구들에 상당 정도 그 근거를 두고 있다.

2) 본 연구의 일차적 목적은 여러 직업집단들간에 생활기회의 영역인 '건강상태'와 '여가생활'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기술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직업과 각 변수들간의 교차분석(crosstabulation) 방법이 있지만, 이 분석법은 각 변수들이 서열 혹은 명목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런 방법을 따르면 등간척도의 경우 많은 정보를 상실하기 때문에 본 연구는 등간척도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평균의 차 검증법을 사용하였다. 그런 까닭에 그리고 지면 관계상 본 연구는 직업을 비롯한 다른 사회-경제적 변수들이 함께 생활기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서는 깊이있게 검토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변수들과 직업변수간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직업변수를 서열화시켜(농업, 생산직, 판매-서비스, 사무직, 전문-기술직, 전문-관리직 순) 상관관계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는 표1에 요약되어 있다.

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사용해 수집하였다. 면접조사를 통해 수집된 총 표본수는 384명으로 6개 직업범주에 비교적 골고루 분포되었으며, 편집과정에서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분석하고자 하는 직업범주에 부적합한 사례 31개를 제외시켜 결국 실제 분석에 사용된 사례수는 353명이었다.

## 2. 직업과 생활기회에 관한 경험연구

1960년대 블라우와 던컨(Blau and Duncan, 1967)에 의한 《미국 직업구조》 연구 이후, 직업은 단일변수로서 혹은 교육성취 및 수입변수와 함께 사회계층, 위세, 계층성원의식, 그리고 사회이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또한 직업은 인간의 경제·사회·문화적 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간주되어 왔다(Cullen and Novick, 1979). 물론 미국의 직업연구에서, 블라우와 던컨의 일차적인 관심은 직업들간에 차별적으로 나타나는 생활기회를 분석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 다른 사회·경제적 배경변수(특히, 부모의 직업과 교육수준 등)가 조사대상자의 직업 선택과 함께 사회적 이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밝히려는 의도에서 시작된 작업이었다. 블라우와 던컨의 직업적 위세를 이용한 지위획득(status attainment)에 관한 체계적인 분석 이후, 직업은 현대 산업사회에서 사회적 이동과 불평등 현상을 연구하는 데 대표적인 단일변수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개인과 사회를 연결시켜 주는 중요한 매개체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자본주의사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고려하면 직업의 중요성은 더욱 명백해진다. 즉, 인구의 대다수가 고용되어 있으며 전체수입의 4분의 3 이상이 자영업을 포함한 임금과 봉급의 형태에서 비롯되고 있다(Parkin, 1971; Featherman, Jones, and Hauser, 1975).

자본주의 산업사회에서 직업이 생활기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직업이 내포하고 있는 다양한 특성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직업은 사회·경제적(socio-economic) 속성을 수반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소규모 사회체계 및 일부 국가가 있을 수도 있지만(예를 들면, 이스라엘, 쿠바, 중국 등), 대다수의 자본주의 산업사회에서 사회경제적 자원의 할당과 단일관계적 경제적 기능(생산과정, 고용, 그리고 시간에 대한 통제)은 직업의 위계서열에 기초하고 있다. 이는 곧 직업이 자원을 통제할 수 있는 권력을 수반하기 때문이라고 한다(Titmuss, 1962;

Featherman, Jones, and Hauser, 1975). 자본주의 산업사회에서 이런 직업적 권력은 수입과 직업집단내 권위관계 등의 모습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결국 직업적 권위는 다른 생활영역의 모습을 구조화시킬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업은 가장 중요한 연구대상이 되고 있다.

산업사회에서 사회적 위세나 경제적 계층의 위계서열구조(hierarchical structure)는 직업구조에 상당정도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이러한 관계는 무엇보다도 사회-경제적 특성인 수입과 교육성취가 직업적 지위 속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Reiss, 1961: 83~84; Sewell and Shah, 1968; McClendon, 1976). 이처럼 산업사회에서 직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으로 인하여 직업적 지위를 측정할 수 있는 체계적인 도식을 발전시키려는 많은 노력들이 있었다. 가장 초기의 작업으로 에드워드의 직업위세 분류를 지적할 수 있다(Edwards, 1943). 에드워드는 공통적인 생활양식과 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6개의 범주로 크게 분류하였다; 1) 전문직, 2) 기업소유주, 경영자, 그리고 관리, 3) 사무직, 4) 숙련노동자와 십장, 5) 반-숙련노동자, 그리고 6) 미-숙련노동자.

그 후 많은 사람들이 센서스 자료를 이용하여 직업을 교육과 임금자료에 기초하여 서열화시켰다(Centers, 1949; Turner, 1964; Nam and Powers, 1968: 158~170). 특히, 트라이만(Treiman, 1975)은 기존의 연구들이 특정 사회에 한정시켜 직업군을 분류하였기 때문에 국제적 비교가 어렵다고 비판하면서, 국제노동기구가 채택하였던 국제표준직업분류를 도입하여 시도하였다. 그는 직업범주를 다음과 같이 1) 전문-기술직, 2) 행정-관리직, 3) 사무직, 4) 판매직, 5) 서비스직, 6) 농림수산업, 7) 생산직, 8) 군인, 9) 미상 등으로 재분류하였다. 트라이만의 이러한 직업분류는 한국의 직업범주를 분류하는 데도 상당히 유용하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많은 연구들이, 명시적 혹은 암시적이든, 트라이만의 직업분류와 흡사한 도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한국의 직업범주를 분석하기 위해서 그의 분석틀을 약간만 수정하면 무리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점은 우리 나라 표준직업분류에서도 잘 반영되고 있다. 즉, 노동부 국립중앙직업안정소(1986)는 한국사회의 직업군은 크게 1) 전문, 기술 및 관련직 종사자, 2) 행정 및 관리직 종사자, 3) 사무 및 관련 종사자, 4) 판매직 종사자, 5) 서비스직 종사자, 6) 농업 및 1차산업 종사자, 7) 생산 및 관련 종사자, 단순노무자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대부분의 사회계급 및 계층연구들은, 맑스주의적 접근을 따르든

또는 베버주의적 관점을 취하든, 분석의 기초로서 단연 직업이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홍두승, 1983; 서관모, 1985). 이는 한국사회에서 직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그만큼 중요할 뿐만 아니라 분석의 도구로서 용이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직업은 경제적 특성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인 특성을 적절하게 잘 반영해 주고 있기 때문에 사회계급이나 계층연구에서 가장 대표적인 변수로 간주되고 있다. 홍두승은 각 직업이 갖는 '사회적 차원의 통제수준'에 주목하여 상류계급, 중상계급, 신중간계급, 구중간계급, 근로자계급, 도시하류계급, 독립자영농, 그리고 농촌하류계급 등 8개의 범주로 계급구분을 하였다(1983). 그런데, 그의 계급분석은 다시 직업분석으로 환원 가능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상류 및 중상계급은 자본가, 행정 및 관리직 종사자 등이 포함되고, 신중간계급은 전문직 종사자와 사무직 종사자 등을 포함하고, 그리고 근로자계급은 생산에 관련된 다양한 직업군을 포함하고 있다.

직업이 갖는 사회 경제적 중요성과 함께, 직업이 갖는 사회-문화적 의미 또한 상당히 중요하다. 즉 직업에 의해 형성되는 사회적 조직을 통해 개개인들은 거대한 사회구조에 참여하게 되고, 이때 직업은 사회와 개인을 연결시켜 주는 매개적인 속성을 가지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일부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직업 종사자들은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따라서 직업은 인간의 삶과 관련된 여러 가지 영역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그리고 특정 직업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과 구분되는 상이한 사회세계와 독특한 '하위문화'(sub-culture)를 가지게 된다(Pavalko, 1971). 이처럼 현대사회에서 직업이 개인생활에 미치는 영향력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미국과 같은 선진 산업사회에서는 직업의 유형에 따라 '삶의 기회' 내지 '삶의 질'이 어떻게 차별적으로 나타나는가를 규명하려는 노력이 1960년대를 전후하여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물론 직업과 생활기회간의 연관성에 관한 초보적인 연구는 1930년대 휘트니(Whitney)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휘트니는 1930년도 미국 센서스 자료를 이용하여 직업의 유형에 따라 나타나는 서로 다른 사망률을 분석한 바 있다. 그의 연구결과나 다른 연구들에 따르면, 사망률은 직업지위가 높을수록 낮은 반면, 직업지위가 낮을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논의이다(Pavalko, 1971, 재인용).

휘트니의 직업과 사망률간의 연구 이후 직업과 생활기회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1950년대까지 간헐적으로 이루어졌다. 예를 들면, 1940년대 위크스(Weeks,



1943)의 직업의 유형에 따른 이혼율의 차이에 관한 연구와 1950년대 케파아트(Kepart, 1955)의 직업수준과 결혼해체에 관한 연구 등이 이루어졌다. 그들의 연구 이후 직업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나는 인간의 생활기회, 즉 노동과 건강, 육체적·정신적 질병, 결혼적응, 자살, 정치지향, 종교, 봉사활동, 그리고 여가활동 등에 관한 연구가 1960년대부터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되었다. 예를 들면, 직업과 건강, 육체적 부상, 정신적 질병 및 아노미에 관한 연구(Powell, 1958; Breed, 1963; Turner and Wagenfeld, 1967; Pavalko, 1971; Kessler and Leary, 1980; Williams, 1990; Williams, Takeuchi, and Adair, 1992; Shihadeh and Steffensmeier, 1994), 직업과 결혼적응에 관한 연구(Orden and Norman, 1969; Ladewig and McGee, 1986), 직업과 노동세계 및 개인생활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Taylor, 1968; Tolbert, Horan, and Beck, 1980; Robinson, 1988; Gecas and Seff, 1989), 그리고 직업과 여가생활에 관한 연구(Clarke, 1956; Wilensky, 1963; Kelly, 1978) 등이 있다.

한국사회에서 직업과 생활기회간의 연구는 사회계층론 분야에서 부분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즉 사회적 불평등현상의 결과로서 '생활양식'(life style)과 '생활기회'가 사회계층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혹은 한정된 직업들간에 어떻게 다른가 연구되어 왔다. 예를 들면, 사회계층에 따라 배우자 선택 및 배우자의 교육수준 차이(공세권 외, 1992), 출생률 차이(Kwon, 1982), 영양상태 차이(이종현·모수미, 1985), 의료이용행태 차이(Cho, 1989; 김영기 1995), 사망률 차이(Kim, 1990), 계층간 거주생활 분리현상(이기석, 1980; 홍두승, 1991) 등에 관한 연구가 있다. 그 밖에 한정된 직업세계에 관한 연구, 예를 들면 사무직과 생산직간의 삶의 질 비교(송복 외, 1995), 일부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및 생활실태(윤여덕·나선영, 1994), 전문직 종사자의 생활과 태도(박종연, 1993) 등이 있다.

이상의 사회계층과 생활기회간의 연구들은 우리에게 한국사회에서 직업과 생활기회 및 삶의 질에 관한 좀더 체계적인 경험적 연구를 위한 기초를 제공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한국사회에서 직업과 인간의 생활기회에 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는 한국사회에서 사회학의 한 분야로서 '직업사회학'이 아직 하나의 학문영역으로 자리 매김을 하지 못한 탓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직업과 생활기회간의 연구는 매우 유의미하고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위에서 언급했듯이, 현대 산업사회에서 직업은 개인의

사회-경제적 및 사회 문화적 영역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며, 또한 직업유형들간에 나타나는 생활기회의 차이는 우선 가장 가시적인 사회적 불평등을 표현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연구결과는 한국사회의 분배(복지)정책, 사회적 불평등현상의 해소, 그리고 바람직한 사회발전을 위한 방향 모색 등 사회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한 기초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북지역의 직업범주들간에 생활기회, 즉 노동 및 건강상태와 여가생활이 각각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경험적 자료를 통해 분석하였다.

### 3. 조사자료 및 분석

#### 1) 응답자의 직업별 사회-경제적 특성

본 연구는 응답자의 다양한 사회 경제적 특성 가운데 직업과 함께 노동 및 건강상태와 여가생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7개 변수들을 선택하여 평균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는 표2에 요약되어 있다. 우리는 이 결과를 자세하게 설명하기 전에 이들 변수들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상관관계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는 표1에 요약되어 있다.

우선 직업과 응답자의 사회 경제적 변수간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변수는 응답

표1 응답자의 직업과 사회-경제적 특성간의 상관관계

	월수입	연령	동산	부동산	교육수준	저축	주택만족도
직업	.2770**	-.1657*	.1100	.0797	.5624**	.2118**	.1120
월수입		.1549*	.4286**	.3055**	.1825**	.5877**	.0547
연령			.1490*	.2291**	-.3775**	-.1643*	.1547*
동산				.4397**	.1271	.2442**	.0795
부동산					.0910	.1843**	.1040
교육수준						.1914**	.0507
저축							.0567

\* p<.05, \*\*p<.01

자의 교육, 월수입, 연령, 저축액 등이다. 이 가운데 가장 강한 관계를 보이고 있는 변수는 교육으로 양자간의 상관관계계수는  $r=.562$ 였고, 그 다음으로 직업과 월평균수입간의 계수는  $r=.277$ 이었고, 저축과의 계수는  $r=.212$ 로서 모두 정적인 관계에 있고 또한 유의미한 관계였다. 그러나 연령과의 관계는  $r=-.166$ 으로 부적의 관계로, 나이가 많을수록 그만큼 직업적 위세가 낮은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이다.<sup>3)</sup> 다른 한편 직업과 재산(동산과 부동산)과 주택환경 만족도간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응답자의 월수입은 재산(동산과 부동산)과 저축 각각과 매우 강한 상관관계에 있다. 예를 들면 이들 관계는 모두 정적인 관계로 유의미하였다. 그 다음으로 이들 변수만큼 강한 관계는 아니지만, 여전히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변수는 연령과 교육수준이다. 그러나 수입과 주택환경 만족도간의 상관관계는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변수 가운데 중요한 변수 하나가 바로 연령이다. 연령은 모든 변수와 유의미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교육수준과 저축 등은 연령과 부적의 관계에 있는데, 이는 바로 나이가 많을수록 교육수준이 낮고, 저축액은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나이가 많을수록 재산은 많이 가지고 있고, 또한 주택거주 만족도가 높다. 다른 한편 응답자의 재산은 마찬가지로 저축액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다. 그러나 주택환경 만족도는 연령과 관계에서 약한 상관관계를 보여주었을 뿐 다른 사회-경제적 변수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응답자의 직업과 사회-경제적 특성간의 상관관계 분석에서 확인된 사실은 우선 직업이 수입 및 교육변수와 상관관계가 높아,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이 직업적 위세가 높은 직업을 가질 기회가 높고, 또한 높은 수입을 얻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바로 한국사회에서 직업이 개인의 사회적 위치를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임이 확인된 셈이다. 다음으로 직업범주별 사회-경제적 특성에서 나타난 특이한 사실은 바로 전문-기술직의 경우이다. 즉, 전문-기술직 종사자들은 교육수준은 전문-관리직 종사자들과 유사하지만, 수입과 재산수준은 판매-서비스직 종사자들보다

3) 그러나 평균의 차 검증에서 기술되고 있듯이, 전문-관리직 종사자들은 농업 종사자 다음으로 높은 연령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직업과 연령간의 관계가 엄격하게 선형적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상관관계계수에만 의존한 해석은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좀더 자세한 자료는 표2를 참조할 것.

높지 않다. 이러한 결과는 전문 기술직 범주를 구성한 대부분이 교사 및 간호사 등으로 그들이 직업적 지위가 과거에 비해 오늘날 상당히 저하되고 있음을 반영한다(차경수, 1983).

다음으로 직업과 응답자의 사회 경제적 특성간의 관계를 평균을 이용하여 검토하면, 표2와 같다. 그 결과에 따르면, 부동산 변수를 제외한 나머지 6개 변수는 직업범주들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직업별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F=22.9$ ,  $p < .001$ ). 예를 들면, 농업 종사자들이 평균 52세로 가장 높았다. 이는 바로 한국의 산업화가 시작된 1960년대 이후 농촌지역은 이농현상으로 젊은 생산력 인구를 상실하여 농촌의 인구가 점차 고령화되어 가고 있다는 논의를 간접적으로 시사해 준다. 다음으로 전문 관리직 종사자와 판매-서비스직 종사자 각각이 43.5와 39.7세로 높았고, 생산직, 사무직, 그리고 전문 기술직 종사자들의 평균 나이는 약 34세로 같았다. 농업을 제외한 직업들 가운데 전문 관리직 종사자의 나이가 가장 높은 이유는 전문 관리직은 일단 다른 직종에 비해 많은 훈련과정(고등교육) 및 자격증을 요구하고 일정한 경력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표2 응답자의 직업별 사회-경제적 특성: 평균의 차의 검증

직업유형변수	농업	판매 서비스	생산직	사무직	전문 기술직	전문 관리직	F값	표본
연령	52.0	39.7	34.2	34.7	34.7	43.5	22.9***	351
교육수준(년)	9.4	12.1	11.8	14.0	14.6	15.0	34.1***	353
월수입(만)	117.4	176.5	104.8	130.1	119.5	268.6	18.7***	351
월저축(만)	41.1	102.6	57.6	71.9	67.9	114.9	8.0***	337
동산(백만)	27.0	24.7	18.8	16.3	20.5	42.8	1.9	352
부동산(백만)	63.9	70.5	24.0	42.1	47.1	93.6	3.3***	351
거주환경만족도	3.5	3.4	2.9	3.5	3.4	3.6	4.5***	351

\*\*\*p < .001.

다음으로 직업별 교육수준의 평균 차의 검증에 의하면, 직업적 위세가 높은 사람들이 높은 교육수준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34.1, p<.001$ ). 예를 들면, 전문-관리직과 전문-기술직 종사자의 교육수준은 평균 약 15.0년으로 가장 높아, 이들 대부분은 거의 대학교육을 이수하였다. 이는 바로 전문-기술직과 전문-관리직이 높은 교육수준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사무직 종사자들 또한 평균 14.0년으로 고등학교 교육수준을 넘어 많은 사람들이 대학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판매-서비스직과 생산직 종사자들의 교육년수는 각각 12.1과 11.8년으로 고등학교 교육을 거의 이수하였으나,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교육년수는 9.4로써 중학교 교육수준을 겨우 넘어선 상태이다.<sup>4)</sup>

직업과 월평균 수입간 관계를 살펴보면, 직업범주에 따라 월평균 수입은 차등적으로 나타났다( $F=18.7, p<.001$ ). 예를 들면, 전문-관리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월평균 수입은 약 269만원으로 생산직 종사자의 평균수입 105만원, 농업 종사자의 117만원, 사무직 종사자의 130만원에 비해 2배 이상의 소득을 벌고 있었다. 반면에 판매-서비스직 종사자는 사무직, 생산직, 농업, 그리고 심지어 전문-기술직 종사자들의 수입보다 많은 176만원을 벌고 있어 전문-관리직 다음으로 높은 소득을 가지고 있다. 이는 비록 이들의 직종이 직업적 위세는 낮을지라도 실지로 소자본을 가진 소규모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많은 까닭에 판매-서비스직 종사자의 수입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은 전문-기술직의 월평균 수입이 사무직 종사자의 수입보다 적은 약 12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조사된 전문-기술직 종사자들 가운데 엔지니어 및 건축사보다는 간호사 및 교사가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직업유형에 따른 저축액 차이 또한 월평균 수입액과 비교적 유사한 유형을 보여주어, 직업별 저축액 차이는 유의미하다( $F=8.0, p<.001$ ). 즉, 월평균 수입과 마찬가지로 전문-관리직과 판매-서비스직 종사자들은

4)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교육년수가 가장 낮게 나타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들의 연령이 높기 때문이다. 농업 종사자들의 평균연령이 약 57세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그들의 평균 교육년수 또한 낮게 나타날 것이라는 사실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본 조사에서도 농업 종사자의 평균연령은 52세로 나타나 그 다음으로 높은 전문-관리직 종사자의 평균연령 43세보다 약 9세 높았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직업범주간에 어떤 사회-경제적 특성 차이가 존재하는지 단순 기술하는 것이며 또한 지면 관계 때문에 독립변수들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검토하지 않았다.

각각 월평균 100만원 이상을 저축하고 있었고, 다음으로 사무직 종사자가 약 72만원, 전문·기술직 종사자가 약 68만원, 생산직 종사자가 약 58만원, 그리고 농업 종사자가 최저 수준인 41만원을 저축하고 있었다. 여기서 농업 종사자들의 저축이 수입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난 것은 그들의 생활이 도시 거주자들에 비해 저축생활화가 덜 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직업별 재산차이는 동산과 부동산을 구분하여 검토한 결과 직업별 동산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F=1.9, p>.05$ ). 그럼에도 직업별 동산의 차이를 보면, 전문·관리직 종사자들이 평균 약 4,3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농업 종사자가 2,700만원, 판매·서비스 종사자가 약 2,500만원, 전문·기술직 종사자가 약 2,000만원, 생산직 종사자가 약 1,900만원, 그리고 사무직 종사자가 가장 적게 약 1,600만원을 가지고 있었다. 다른 한편, 부동산은 직업유형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며, 그 차의 검증결과 또한 유의미하다( $F=3.3, p<.001$ ). 전문·관리직 종사자들은 평균 부동산을 약 9,400만원 정도 가지고 있어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판매·서비스직 종사자들인데 약 7,100만원 정도이다. 이는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그들이 소규모 가게 등과 같은 자영업을 하고 있는 관계로 그들의 부동산 가치가 상당히 높기 때문이다. 세번째로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서 약 6,400만원 정도이다. 이는 이들이 도시 근교에 소유하고 있는 논과 밭의 토지가격 환산에서 기인한 듯하다. 이들의 부동산과 대조적으로 전문·기술직, 사무직, 그리고 생산직 종사자들은 동산부문에서와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가장 적게 각각 평균 4,700만원, 4,200만원, 그리고 2,400만원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이는 이들이 주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거나 임대하고 있는 가격에 해당하는 재산 정도와 일치한다.

마지막으로 직업유형별 거주환경 만족도 또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F=4.5, p<.001$ ). 거주환경은 그들이 살고 있는 주택과 주변환경을 주관적으로 평가한 것을 바탕으로 측정된 것인데,<sup>5)</sup> 생산직 종사자들을 제외한 모든 직종에 종사

5) 오늘날 렉스와 무어(Rex and Moore)의 주택계급이 시사하듯이 주택은 분명 사회계급 및 사회계층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이다(Slattery, 1985). 그러나 한국의 거주공간은 단독주택지역의 공간적 계층분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단독주택과 아파트 두 지역으로 분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주택을 중요한 변수로 간주하면서도 방법론적으로 거주공간을 서열척도화시키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응답자들로 하여금 본인이 살고 있는 주택과 그 주변환

하는 사람들은 평균 3.6에서 3.4로 ‘그저 그렇다’와 ‘만족’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비교적 만족스럽게 평가하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전문·관리직 종사자들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3.6을 얻어 가장 만족스러운 주택과 거주환경을 가지고 있다. 반면 생산직 종사자들은 평균 2.9점으로 그들의 주택 및 거주환경에 대해 대체로 ‘불만족’하거나 혹은 ‘그저 그렇다’라고 느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일차적으로 생산직 종사자들의 주택형태가 전세 내지 평수가 작은 아파트 혹은 주택으로 주거환경 자체가 상대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이다.

## 2) 직업과 생활기회간의 관계

### (1) 직업별 건강상태의 차이

여러 직업들 사이에 건강상태에 어떤 차이가 존재하는지 검토하기 위해 본 연구는 직업별로 주당 근로시간, 작업환경 만족도, 산업재해 및 직업병 발생 가능성, 현재 직업에서 경험한 부상횟수, 직업 수행이 본인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력, 현재의 건강상태 인식, 그리고 예상되는 퇴직연령 등을 분석하였다. 직업종사자의 건강과 관련된 변수들의 분석결과는 표3에 요약되어 있듯이, 모든 변수들은 직업유형들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표3 직업별 건강상태: 평균 차의 검증

직업유형변수	농업	판매 서비스	생산직	사무직	전문 기술직	전문 관리직	F값	표본
주 근로시간	57.9	72.2	56.2	49.8	49.8	60.0	23.8***	350
작업환경 만족도	3.2	3.4	2.9	3.5	3.3	3.7	6.5***	353
직업병 발생 가능성	3.2	2.6	3.2	2.5	2.8	2.3	16.3***	338
현 직업에서 부상횟수	1.7	0.7	1.3	0.3	0.2	0.6	6.7***	349
직업에 의한 건강의 영향	2.9	2.8	2.5	3.0	3.0	3.2	5.1***	352
현 건강상태	3.0	3.4	3.3	3.4	3.5	3.5	2.8*	352
예상퇴직연령	73.1	64.9	53.5	55.7	54.7	63.2	18.9***	353

\*p<.05, \*\*\* p<.001

경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도록 질문하였다.

먼저 1주일 동안의 근로시간은 직업유형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 $F=23.8, p<.001$ ). 6개 직업범주들 가운데 1주일 동안 가장 많은 근로시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판매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1주일 동안 약 72시간을 일한다. 이러한 장시간의 노동은 위에서 검토하였듯이 그들의 높은 월수입(전문-관리직 다음으로 높은 월수입)과 무관하지 않고, 또한 하는 일 자체가 장시간의 자기 노동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 오랫동안 일하는 사람들은 전문-관리직에 종사하는 사람들로서 그들은 약 60시간 일하고 있어, 전문-기술직과 사무직 종사자들(똑같이 약 50시간)보다 무려 10시간이나 더 일하고 있다. 전문-관리직 종사자들의 장기적 노동시간은 그들 특유의 직업형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그들의 직업은 자율성이 보장된 반면, 자기의 노력 정도에 따라 수입이 결정되기 때문에 비교적 장시간 근무하는 경향이 있다.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1주일 근로시간은 약 58시간으로 세번째로 높았다. 그러나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근로시간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수량화시키는 작업 자체가 쉬운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이를 시도하였는데, 조사시기가 농한기인 까닭에 그들의 근로시간이 다소 낮게 나타나지 않았나 싶다. 생산직 종사자의 근로시간은 56시간으로 사무직 종사자의 49시간에 비해 7시간이나 길었다. 비록 1주일 동안 법정 근로시간이 44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직과 생산직 종사자들은 실질적으로 장시간 일하고 있다. 이들의 장시간 노동은 비단 전북지역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특히 전북지역내 제조업체의 영세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김정원, 1997).

응답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작업환경에 대한 평가도 직업유형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F=6.5, p<.001$ ). 작업환경에 가장 만족을 느끼는 사람들은 전문-관리직 종사자들로 5점 만족척도에서 평균 3.7을 얻었다. 그 다음으로 사무직이 3.5, 판매-서비스직 종사자가 3.4점을 얻었다. 전문-관리직, 사무직, 그리고 판매-서비스직 종사자들의 높은 작업환경 만족도는 그들 직업특성에서 비롯된 자율성 및 자기 작업환경에 대한 책임성, 그리고 작업의 안정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반면 생산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가장 낮은 2.9점을 얻어, 작업환경에 상당히 불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이는 전북지역내 제조업체의 상대적 영세성을 고려하면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농업과 전문 기술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전문-관리직과 생산직 중간 정도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농업 종사자들이 생산직 종사자들보다 작업환경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은 최근 농업 기계화의 보급에 따라 일



자체가 손쉬워졌으며, 자율적인 일의 성격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직업유형에 따른 산업재해 및 '직업병' 발생 가능성은 작업장 환경 만족도와 역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직업별로 산업재해 및 직업병 발생가능 인식도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F=16.3, p<.001$ ). 산업재해 및 직업병 발생 정도는 각 직종에 따라 그 양상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 양적 비교가 일단 어렵다는 점에서 타당성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지만, 본 연구는 각 직업 종사자들의 주관적 평가에 기초하여 비교하였다. 직업병 및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을 가장 높게 느끼고 있는 사람은 생산직과 농업 종사자로 그 점수가 각각 3.2로 같았다. 제조업에 종사하는 생산직 종사자들은 그만큼 위험한 일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업체의 영세성에 따른 작업환경의 열악성 때문에 높게 나타날 것으로 종사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직업병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느끼고 있는 것은 최근 농약중독의 심각성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사무직과 전문-관리직 종사자들은 직업병 발생 가능성을 비교적 심각하게 느끼지 않고 있는데, 이는 그들의 직업 자체가 안전하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전문-기술직 종사자들은 2.8로서 판매-서비스직 종사자들의 2.6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작업환경이 비교적 열악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해 준다.

본 연구는 작업환경과 관련된 주관적 인식평가와 달리 현재 직업에서 경험한 부상횟수를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직업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F=6.7, p<.001$ ). 분석결과에 의하면, 우선 농업 종사자와 생산직 종사자들이 평균 1.7과 1.3회로 평균적으로 한 번 이상 현재 직업에서 부상을 경험하였다. 이는 그만큼 양 직업세계가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농업 종사자의 부상횟수가 생산직 종사자의 그것보다 많은 것은 그들의 평균 나이가 많고 또한 좀더 오랫동안 농업에 종사해 왔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 판매-서비스직 및 전문-관리직이 0.7과 0.6회로 응답자 가운데 평균 절반 이상이 부상을 경험하였다. 마지막으로 사무직과 전문-기술직 종사자들은 거의 부상을 경험하지 않았다.

산업재해 및 직업병 발생 가능성과 유사하게 직업 자체가 종사자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직업유형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F=5.1, p<.001$ ). 먼저 전문-관리직 종사자들은 직업이 그들의 건강에 비교적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인식한 반면, 생산직 종사자들은 직업 자체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다른 한편, 농업, 사무직, 전문 기술직, 그리고 판매 서비스 종사자들은 전문 관리직과 생산직 종사자들의 중간적 위치에 놓여 있다.

다른 한편 응답자들의 현재 건강상태를 주관적 평가에 기초하여 분석하였는데, 우선 응답자 대다수가 자신의 건강상태가 나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그 차이는 유의하였다( $F=2.8, p<.05$ ). 6개의 직업범주 가운데 전문 관리직과 전문 기술직 종사자들은 자신의 건강상태를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평가한 반면, 농업 종사자들은 건강상태가 가장 나쁜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는 위에서 검토하였듯이, 그들이 가장 많은 부상을 경험하였고 또한 나이가 가장 많기 때문에 현재의 건강상태에 대한 평가가 낮게 나타난 것이다.<sup>6)</sup>

마지막으로 예상되는 퇴직연령은 직업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F=18.9, p<.001$ ). 먼저 예상되는 퇴직연령이 가장 높은 직종은 농업이다.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사실 예상되는 퇴직연령을 상정하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평균 73세를 퇴직연령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음으로 판매-서비스직과 전문-관리직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각각 65세와 63세로 상정하고 있다. 그리고 사무직, 전문-기술직, 그리고 생산직 종사자들은 대개 법적으로 규정된 퇴직연령이 있는 까닭에 각각 53에서 56세까지 나타났다. 결국 농업, 판매-서비스, 그리고 전문-관리직과 같이 자율성이 보장되고, 고용의 성격이 약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건강이 허락할 시간까지 일을 계속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 (2) 직업유형별 여가생활의 차이

직업유형별로 여가생활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검토하기 위해 본 연구는 여가생활과 관련된 변수로 1주일간 여가시간, 월평균 가족 여가비용, 월평균 외식수 및 외식비, 연간 유급휴가일, 연간 여행일수 및 경비, 그리고 여가생활 만족도 등을 사용하였다. 이들 여가생활과 관련된 변수들에 관한 직업유형별간의 차의 검증결과

6) 현재의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연령변수와 부상횟수 변수를 통제한 후, 직업범주별로 현재의 건강상태 인식에 차이가 여전히 존재하는지 검토하기 위해 다단계 변량분석을 하였다. 먼저 직업과 건강상태간의 단순상관관계계수는  $r=.178$ 이었다. 그러나 연령변수와 부상횟수 변수를 통제한 후 상관관계계수는  $r=.113$ 로 낮아져 두 변수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부상과 건강간의 상관관계계수가  $r=.217$ 로서 전자보다 높아 더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4 직업별 여가생활: 평균의 차이 검증

직업유형변수	농업	판매 서비스	생산직	사무직	전문 기술직	전문 관리직	F값	표본
주 여가시간	14.9	13.3	14.1	14.5	16.3	18.6	3.4	339
월평균 여가비 (만원)	4.3	10.4	7.1	10.8	10.5	16.4	5.9***	343
월 외식수	0.6	1.9	1.3	1.9	1.7	2.0	6.4***	343
월 외식비용 (만원)	2.6	8.1	5.7	8.2	8.6	13.5	6.7***	339
연 유급휴가(일)		4.4	5.6	8.6	11.3	8.4	9.1***	324
연간 여행일수	3.3	5.3	5.1	7.3	5.9	9.5	6.6***	349
연간 여행비 (만원)	19.4	26.1	19.0	34.6	26.8	39.2	5.8***	350
여가생활 만족도	3.3	2.9	3.0	3.3	3.3	3.5	2.3*	353

\* p<.05, \*\*\* p<.001

는 표4에 요약되어 있는데, 주변 여가시간 변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들은 직업유형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과 상호보완관계에 있는 여가시간은 일차적으로 '자유시간'을 의미한다. 그런데 근로시간 외에도 인간은 생리적인 활동에 상당 시간을 할애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여가시간이란 생리적인 필수시간 및 일과 관련된 근로시간을 제외한 자유로운 시간을 의미한다(Pavalko, 1971; 김문겸, 1993). 이러한 개념정의 를 사용하여 여가시간을 측정하였을 때, 1주일 동안 여가시간에 대한 직업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F=3.4, p>.05). 그럼에도 직업범주들간의 여가시간은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전문-관리직 종사자들은 1주일 동안 가장 많은 약 19시간의 여가시간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 전문-기술직 종사자가 16시간, 그리고 나머지 직업유형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거의 유사하게 약 14시간의 여가시간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농업 종사자들의 여가시간 측정은 상당한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자료의 타당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지만, 그들의 여가시간이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그것과 유사하게 나타난 것은 농한기에 조사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다음으로 1개월 동안 응답자가 사용하고 있는 여가비용은 직업유형별로 유의미

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F=5.9, p<.001$ ). 먼저 전문 관리직 종사자들은 한달 동안 약 16만원으로 다른 직종의 종사자들보다 많은 여가비용을 사용하고 있다. 다음으로 많은 여가비용을 쓰고 있는 사람들은 사무직, 전문 기술직, 그리고 판매 서비스직 종사자들로 약 10만원, 그리고 생산직 종사자들은 약 7만원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 종사자들은 그들의 수입과 재산의 정도와 달리 한달에 약 4만원 정도를 여가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바로 그들의 생활문화와 무관하지 않다.<sup>7)</sup>

여가비용을 좀더 세분해서 외식비용과 여행경비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직업유형에 따라 외식비용과 여행비용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각각  $F=6.7, p<.001$ ;  $F=5.8, p<.001$ ). 먼저 외식비용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직업 집단은 전문 관리직으로 한달 평균 14만원을 사용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전문 기술직, 사무직, 그리고 판매 서비스직 종사자들이 약 8만원을 사용하고, 생산직 종사자는 약 6만원을, 그리고 농업 종사자들은 약 3만원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직종간 외식비용의 차이는 외식횟수의 차이와 비례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외식횟수가 많을수록 외식비용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외식비용은 직업들간에 차등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F=6.7, p<.001$ ). 예를 들면, 가장 많은 외식비용을 사용하고 있는 전문 관리직 종사자들은 한달간 평균 2번 외식에 약 14만원을 사용하고 있다. 다음으로 사무직, 판매 서비스직, 그리고 전문 기술직 종사자들이 한달 평균 1.7에서 1.9회에 약 8만원을 사용하고 있고, 생산직 종사자는 한달에 평균 1.3회의 외식에 약 6만원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 종사자들은 평균 두 달에 한 번 정도 외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경비의 경우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직업집단은 전문 관리직 종사자로 1년간 평균 39만원을 사용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사무직 종사자가 약 35만원, 전문

7) 응답자의 여가비용은 직업 외에 응답자의 월수입과 재산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본 연구는 두 변수를 통제할 경우 직업과 여가비용간의 관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검토하였다. 응답자의 직업과 여가비용간의 상관관계계수는  $r=.250$ 으로 유의미하였다. 그런데 연령, 재산, 그리고 월수입 변수를 투입하여 회귀분석한 결과를 보면, 직업과 여가비용간의 상관관계계수는  $r=.153$ 으로 낮아져 다른 변수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부분상관관계수에서 수입과 여가비용이  $r=.228$ 로 여가비용과 더 밀접한 관계가 있다. 다음으로 재산 변수가  $r=.169$ 로 높았다. 그러나 연령변수는 거의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r=-.070$ ). 이는 곧 여가비용은 직업 외의 다른 변수들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기술직 약 27만원, 그리고 판매-서비스직 종사자가 약 26만원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외식비용과 달리 여행경비에서는 농업 종사자가 1년 평균 19.4만원을 사용하고 있어 생산직 종사자의 19만원보다 4천원을 더 사용하였다. 여행경비와 마찬가지로 1년 평균 여행일수 또한 직업유형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F=6.6$ ,  $p<.001$ ). 전문-관리직 종사자가 1년 평균 9.5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사무직 종사자가 7.3일, 전문-기술직 종사자가 5.9일, 판매-서비스직 종사자가 5.3일 정도 여행을 하고 있다. 그러나 여행경비와 달리 여행일수에서는 생산직 종사자가 5.3일로 농업 종사자의 3.3일보다 높았다. 이러한 차이는 생산직 종사자가 여행경비는 적게 수시로 여행을 하는 반면, 농업 종사자는 여행일수는 적을지라도 많은 비용을 일시에 사용하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유급휴가는 직업유형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F=9.1$ ,  $p<.001$ ). 다만 농업 종사자 집단은 유급휴가가 없는 관계로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유급휴가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사람들은 전문-기술직 종사자들로 1년에 평균 11.3일을 받고 있다. 그 다음으로 사무직 종사자가 8.6일, 전문-관리직 종사자가 8.4일의 유급휴가를 받고 있었다. 반면 생산직 종사자들은 연평균 5.6일 정도, 그리고 판매-서비스직 종사자는 약 4.4일 정도의 유급휴가를 받고 있었다.<sup>8)</sup>

마지막으로 여가활동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 평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지만, 그 신뢰도는 그리 높지 않다( $F=2.3$ ,  $p<.05$ ). 여가활동에 가장 만족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전문-관리직 종사자들로 5점 척도에서 3.5점을 얻었다. 이는 바로 그들이 여가시간과 여가비용 등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우수한 기회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로 미루어 당연한 결과이다. 다음으로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은 사무직, 전문-기술직, 그리고 농업 종사자들로 똑같이 3.3을 얻었다. 특히 농업 종사자들의 여가활동 만족도는 예상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그만큼 농업 종사자들의 생활이 과거와 달리 상대적으로 크게 개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가 생활에서도 도시의 일부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그것에 근접하고 있음을 암시해 준다. 예를 들면, 판매-서비스직 및 생산직 종사자들의 여가활동 만족도는 각각 2.9와 3.0을 기록해 농업 종사자들의 만족도보다 상대적으로 낮는데 이는 그들의

8) 판매-서비스직 종사자들 가운데 일부는 소규모 가게를 소유한 사람들이 상당수 있는데, 이들은 유급휴가의 분석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직업특성과 생활에서 비롯되는, 즉 여가시간 또는 여가비용의 문제와 관계가 있다. 즉, 생산직 종사자들은 여가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판매·서비스 종사자들은 여가시간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그들은 상대적으로 여가생활에 불만족을 느끼고 있다.

#### 4. 요약 및 결론

이상에서 우리는 전북지역내 직업유형별로 생활기회가 어떻게 차등적으로 나타나는가를 검토하였다. 우리는 연구범위를 전북지역에 한정시켜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응답자의 직업과 관련된 사회·경제적 특성 분석에서 확인된 사실은 우선 직업이 수입과 교육변수 등과 상관관계가 높다는 점이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직업이 개인의 사회적 위치를 나타내는 데 대표적인 지표임을 확인한 셈이다. 다음으로 직업범주별로 사회·경제적 특성의 차이를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우선 전문·기술직의 사회적 위치에 관한 평가이다. 전문·기술직은 분명 교육수준은 전문·관리직 종사자의 그것과 유사하지만, 수입과 재산 등은 판매·서비스직 종사자들보다 많지 않다. 이러한 불일치한 관계는 전문 기술직에 포함된 사람들이 대부분 교사 및 간호사들로 그들의 직업적 지위가 전문 기술직으로서 재고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특히 그들이 지위가 과거에 높게 평가되었지만, 오늘날 직업의 전문화가 추진되면서 교사 및 간호직은 그 직업적 지위가 저하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판매·서비스직 종사자들은 교육을 제외한 다른 변수에서 전문·관리직 다음으로 우수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형성하고 있어, 그것이 다음 세대에 좀더 강력한 자원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건강상태와 관련된 모든 변수들은 직업유형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전문·관리직 종사자들은 근로시간과 퇴직예상연령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지만, 건강상태에 관한 변수에서 가장 긍정적인 점수를 얻어 높은 생활기회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으로 높은 생활기회를 누리고 있는 직업범주는 근로시간이 가장 적고 비교적 양호한 근로환경을 가진 사무직 종사자들이다. 반면에 생산직 종사자들은 많은 근로시간과 조기 퇴직예상연령 그리고 열악한 작업환경 등으로 농업과 판매·서비스직 종사자들보다 낮은 생활기회를 누리고 있다. 그 다음으로 낮은

생활기회를 가진 사람들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판매-서비스직 종사자들은 비록 장시간 근무하고 있지만 작업환경의 양호성과 함께 경제적 사정의 양호함으로 인해 비교적 근로 및 환경에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어, 이들의 생활기회는 이 부문에서 사무직 종사자들의 그것에 근접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상태와 관련된 변수들간에 가장 상충된 기회를 가진 집단은 바로 전문-기술직 종사자들이다. 그들은 근로시간, 경험한 부상횟수, 현재 건강상태 등에서는 사무직 종사자들에 근접하고 있지만, 높은 직업병 발생 가능성, 낮은 작업환경 만족도, 그리고 조기 퇴직연령 등에서 사무직보다 열악한 기회를 누리고 있고 심지어 판매-서비스직 종사자들보다 월등하지 않다.

여가생활부문에서 여가시간을 제외한 모든 변수에서 직업유형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문-관리직 종사자들은 여가시간을 비롯하여 모든 여가생활 항목에서 높은 수치를 얻어 다른 직업집단에 비해 양호한 여가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사무직과 전문-기술직 종사자들은 전문-관리직 종사자들보다 모든 항목에서 약간 낮게 나타나고 있어 전문-관리직 종사자들 다음으로 양호한 여가생활을 즐기고 있다. 사무직 종사자들은 여행과 관련해서 전문-기술직 종사자들보다 높았지만, 외식과 관련해서는 낮았다. 판매-서비스직 종사자들은 일부의 항목에서 사무직 종사자들의 여가생활에 근접하면서 일부에서 다소 뒤처지고 있어 다음으로 양호한 여가생활을 즐기고 있다. 특히 판매-서비스직 종사자들의 여가생활을 제약하는 요인은 그들의 일 성격에서 비롯되는 시간부족이다. 그 다음으로 양호한 여가생활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은 생산직 종사자들이다. 특히 생산직 종사자들의 여가활동을 제약하는 것은 그들의 경제적 사정에서 비롯되는 여가비용 부족이다. 마지막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위에서 검토한 사회-경제적 특성과 근로 및 건강부문을 제외한 여가생활에서는 생산직 종사자들보다 낮은 여가생활을 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비록 조사지역이 도시 근교에 거주하는 농업 종사자들이지만, 그들의 삶 자체가 우리가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여가생활과 다소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우선 직업별로 생활기회인 건강상태와 여가생활이 차등적으로 주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직업적 위세가 가장 높은 전문-관리직 종사자들은 모든 부분에서 가장 우수한 생활기회를 누리고 있다. 다음으로 전문-기술직과 사무직 종사자들이 일부 영역에서 전문-관리직 종사자들의 위치에 근접하면서도 일부 영역에서는 판매-서비스직 종사자들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전문

-기술직 종사자들의 여러 부분에서 상반된 기회를 누리고 있어(일의 자율성과 안정성이 보장된 반면, 작업환경의 열악성과 그것이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측면), 그들의 직업적 지위가 사회변화와 함께 변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마찬가지로 판매-서비스직 종사자들은 직업적 위세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전문 기술직과 사무직 종사자들의 생활기회보다 우수하거나 근접하고 있어 상당정도로 높은 생활기회를 누리고 있다.

그러나 농업과 생산직 종사자들은 비교적 열악한 생활기회를 누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과 생산직 종사자들간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 즉 농업 종사자들은 여가활동과 관련된 변수에서 생산직 종사자들보다 낮게 나타났고, 나머지 건강상태 및 경제적 여건은 비교적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연구결과 및 인식과 상이한 것으로 몇 가지 유추가 가능하다. 우선은 농촌생활 자체가 그동안 상당히 개선되어 왔다는 사실과 함께 그들이 도시 근교 거주자들이며 또한 조사시기가 농한기였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비록 1980년대 이후 임금인상과 함께 생산직 종사자들의 지위가 향상되었다고 하지만 그들의 생활기회는 다른 직업 종사자들에 비해 여전히 제한적이다. 특히 전북지역내 제조업체의 영세성을 고려한다면, 생산직 종사자들의 생활기회가 제한적이라는 잠정적 결론은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가질 수 있다. 오늘날 세계적인 무한경쟁시대에 생산직 종사자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데, 그들의 상대적 생활불만족은 우리 경제의 재도약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그들의 제한된 생활기회를 보완해 줄 수 있는 대안은 바로 국가 혹은 기업차원에서 생산직 종사자들의 생활기회를 높여주는 정책들을 입안 수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전문-기술직은 직업적 위세가 비교적 높게 평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환경 및 사회-경제적 제반 특성에서 비교적 열악하게 나타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요구된다. 즉 이런 현상이 전북지역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면 직업적 분류에 새로운 분석틀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여러 가지 여건상 연구범위가 전북지역에 한정됐다는 것과 전북지역과 전체 한국사회와의 현격한 차이 때문에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를 일반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생활기회를 측정하기 위해 여러 가지 객관적·주관적인 변수들을 사용하였는데, 그 결과는 직업유형들 사이에 불일치한 경우가 많았다. 이를 개선하는 작업은 여기서 우리의 연구범위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 작업으로 미루고자 한다. 또한 미래 연구는 생활기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변수들을 어떻게 조작적으로 단일차원적인 척도로 구성해 직업들간의 생활기회 차이를 적절하고 타당하게 밝혀낼 것인가 하는 작업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미래의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직업에 따라 생활기회가 얼마나 차등적으로 나타나며, 한국사회내 지역발전 변수는 생활기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검토하는 연구여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공세권·조애저·김승권·손성희(1992), 《한국에서 가족형성과 출산형태》, 한국보건사회 연구회.
- 김문겸(1993), 《여가의 사회학: 한국의 레저문화》, 한올아카데미.
- 김영기(1995), “사회경제적 지위와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사회과학 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제21: 9~24.
- 김영정(1991), “전북도시지역의 불균등성장: 1965~1985”, 《한국사회학》 25(겨울호).
- 김정원(1997), “전북지역 재구조화의 과정과 성격”, 전북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석사논문 (미간행).
- 노동부 국립중앙직업안정소(1986), 《한국직업사전》.
- 멜빈 튜민(Melvin M. Tumin)(1964), 《사회계층론》, 김채운·장하진 공역, 삼영사.
- 박재규(1997), “한국 사회발전의 침체에 관한 연구”, 《경제와 사회》 제33(봄호).
- 박종연(1993), “한국 의사의 전문직업성 추이: 의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태도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27(겨울호): 219~234.
- 박찬욱(1992), “14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의 정당지지 분석”, 《선거와 한국정치》, 한국정치 학회, pp.177-220.
- 서관모(1985), “한국사회 계급구성의 사회총계적 연구”, 《산업사회연구》 1: 23~192.
- 송복 외(1995), 《한국 근로자들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 이기석(1980), “대도시 거주지 분화와 패턴에 관한 연구”, 《한국의 도시와 촌락연구》, 진보 제, pp.128~72.
- 이종현·모수미(1985), “서울 시내 일부 저소득층 유아원 어린이의 영향실태조사”, 《대한보 건협회지》 11(1): 89~100.
- 윤여덕·나선영(1994), “건설 일용노동자의 자활방안 모색을 위한 기초연구: 노동조건 및 생활실태에 관한 조사분석”, 《한국사회학》 28(봄호): 121~142.
- 전춘애(1989), “사회계층에 따른 부부의 권력과 폭력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27: 133~46.
- 차경수(1983), “교원의 직업적 위신과 그 관련요인”, 서울대 사회학연구회 편, 《한국사회의 전통과 변화》, 범문사.
- 초의수(1993), “한국 자본주의 전개와 지역구조의 변화”, 부산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미간행).
- 최재석(1971), “한국 도시가족의 권력구조: 서울시 가족을 중심으로”, 《아시아연구》 14(4):

77~95.

- 한국공간환경연구회(1994), 《지역불균형연구》, 한울 아카데미.
- 홍두승(1983), “직업분석을 통한 계층연구: 한국표준직업분류를 중심으로”,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5(3): 69~87.
- \_\_\_\_\_(1991), “계층의 공간적 분화, 1975~1985: 서울시의 경우”, 《사회계층: 이론과 실제》, 다산 출판사, pp. 567~83.
- Blau, Peter and Otis Duncan(1967), *The American Occupational Structure*, New York: John Wiley.
- Breed, Warren(1963), “Occupational Mobility and Suicide Among White Mal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8(April): 179~188.
- Centers, Richard(1949), *The Psychology of Social Classes: A Study of Class Consciousnes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Cho, Sung-Nam(1989), “Social Class and Health Services Use in Korea”, *Bulletin of the Population and Development Studies Center* 18: 12~37.
- Clarke, Alfred(1956), “The Use of Leisure and its Relation to Levels of Occupational Prestig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1(June): 301~307.
- Cullen, John and Shelly Novick(1979), “The Davis-Moore Theory of Stratification: A Further Examination and Extens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4:1424~37.
- Edwards, Alba(1943), *Comparative Occupational Statistics for the United States, 1890~1940*, Washington: U.S. Government Office.
- Featherman, David, F. Jones, and Robert Hauser(1975), “Assumptions of Social Mobility Research in the U.S.: The Case of Occupational Status”, *Social Science Research* 4: 329~360.
- Frobel, F. et al.(1980), *The New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 Structural Unemployment in industrialized Countries and Industrializ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ecas, V. and M. Seff(1989), “Social Class, Occupational Conditions, and Self-esteem”, *Sociological Perspectives* 32(3): 353~65.
- Gerth, Hans and Wright Mills(1946), *From Max Weber: Essays in Sociolo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Kelly, J.R.(1978), “A Revised Paradigm of Leisure Choices”, *Social and Leisure* 8(3):73~82.

- Kepart, William(1955), "Occupational Level and Marital Disrup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0(August): 456~465.
- Kessler, Ronald and Paul Cleary(1980), "Stress, Social Status, and Psychological Distres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5: 463-78.
- Kim, Tai-Hun(1990), *Mortality Transition in Korea, 1960~1980*, Seoul: The Population and Development Studies Center, Seoul National University.
- Kwon, Tai-Hwan(1982), "Differentials in Korean Fertility," in Yunshik Chang et al., eds. *Society in Transition*,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 Ladewig, Becky and Gail McGee(1986), "Occupational Commitment, a Supportive Family Environment, and Marital Adjustmen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8(Nov.): 821~829.
- McClendon, McKee J. (1976), "The Occupational Status Attainment Processes of Males and Femal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1(Feb.): 52~64.
- Nam, Charles and Mary Powers(1968), "Changes in the Relative Status Level of Workers in the United States, 1950~60", *Social Forces*, 47(December): 158~170.
- Orden, Susan and Norman Bradburn(1969), "Working Wives and Marriage Happines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4(January): 392~407.
- Park, Chaekyu(1996), "Korea on the Road to Post-Industrialization: New Challenges and Strategies for the 1990s", Ph.D dissertation, Temple University(unpublished).
- Parkin, F. (1971), *Class Inequality and Political Order*, New York: Praeger.
- Pavalko, Ronald(1971), *Sociology of Occupations and Professions*, Itasca, Ill: F.E. Peacock Publishers, Inc.
- Powell, Elwin(1958), "Occupation, Status, Suicide: Toward a Redefinition of Anomi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3(April): 131~138.
- Reiss, Albert(1961), *Occupations and Social Status*, New York: The Free Press.
- Robinson, J. (1988), "Workplace Hazard and Workers' Desires for Union Representation", *Journal of Labor Research* 9: 237~49.
- Sewell, William and Vimal Shah(1968), "Social Class, Parent's Encouragement, and Educational Aspira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3: 559~72.
- Shihadeh, Edward and D. Steffensmeier(1994), "Economic Inequality, Family Disruption, and Urban Black Violence: Cities as Units of Stratification and Social Con-

- trol", *Social Forces* 73(2): 729~750.
- Slattery, Martin(1985), "Urban Sociology," in M. Haralambos(ed.), *Sociology: New Directions*, Lancashire: Causeway Press.
- Taylor, Lee(1968), *Occupational Sociolo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Titmuss, R. (1962), *Income Distribution and Social Change*, London: G. Allen and Unwin, Ltd.
- Tolbert, C., P. Horan, and E. Beck(1980), "The Structure of Economic Segmentation: A Dual Economy Approach",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5: 1095~1116.
- Treiman, Donald(1975), "Problems of Concept and Measurement in the Comparative Study of Occupational Mobility", *Social Science Research* 4(Sept.): 181~230.
- Turner, Jay and M. Wagenfeld(1967), "Occupational Mobility and Schizophrenia: Assessment of the Social Causation and Social Selection Hypothes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2(Feb.): 104~113.
- Turner, Ralph(1964), *The Social Context of Ambition*, San Francisco: Chandler Publishing Company.
- Weber, Max(1946), *From Max Weber: Essays in Sociology*, edited by H. Gerth and C. Wright Mill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Weeks, Ashley(1943), "Differences Divorce Rates by Occupations", *Social Forces*, 21(March): 334~337.
- Wilensky, Harold(1963), "The Uneven Distribution of Leisure", in Erwin Smigel(ed.), *Work and Leisure*, New Haven: College and University Press.
- Williams, David, David Takeuchi, and Russel Adair(1992), "Socioeconomic Status and Psychiatric Disorder among Blacks and White", *Social Forces*, 71(1, setp): 179-194.
- Williams, David(1990), "Socioeconomic Differentials in Health: A Review and Redirection", *Social Psychology Quarterly*, 53: 81-99.

abstract

---

## A Study on Occupations and Life Chance The Case of Chonbuk Province

Young-Key Kim · Chae-kyu Park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scribe the different life chances among various occupational groups in Chonbuk Province which has been excluded in the process of Korea's industrialization since the 1960s. More specifically, this study analyzed to what extent 6 occupational groups have the different life chances in the sub-levels such as health conditions and leisure life.

According to our data analysis, it is found that the 6 occupational groups have the different life chances. That is, while those who are engaged in the higher prestigious occupation have a good life chance, those who in the lower prestigious occupation have a worse life chance. For example, among 6 occupational groups, professional-managerial who secure the higher autonomy and stability in their work have the highest life chance in the labor and health, and leisure life. Next, professional-technical, white-collar, sales-service occupants have the higher life chance after the professional-managerial. However, these 3 occupation groups are partially inconsistent in the two sectors of the life chance. Specifically, the professional-technical, despite their autonomy and stability in the work world, conceived that their work conditions are worse as well as badly influencing on their own health. On the other hand, the sales-service workers group, despite their lower social status, is relatively autonomous and stable in their work environment and thus has the higher life chances. Finally, agricultural and productive

workers have relatively the lower life chances. Nevertheless, there are some clear differences among these 2 occupational groups. That is, the farmers have relatively the higher life chances in the sectors of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and labor and health rather than productive workers. As a result, the productive workers are generally located in the lowest level of life chance. This fact is particularly attributed to the fragility of manufacturing industries in Chonbuk Province.

